

청안한 지혜의 등불로 늘 함께하시길...

종단발전과 한국불교 중흥, 그리고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위해 일평생 정진해 오신 월주 큰스님의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과 화보집의 발간을 공경의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뚜렷하고 철저한 종단관과 확고한 국가관을 지니신 스님은 불교계를 넘어 국가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대의 지도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항상 근념(勤念)하시고, 건강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 오셨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정화불사의 주역인 금오 대종사의 회상에서 일평생 올곧은 수행가풍 회복과 종단이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위해 ‘마철저이성침(磨鐵杵而成針)’의 서원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수행자 본연의 입장을 견지하며 흔들림 없는 균형추와 방향을 제시하셨기에, 사부대중 모두에게는 나침반과 다름이 없는 수승한 귀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금산사 주지, 동국대 이사 등, 종단의 크고 작은 공직(公職)을 오직 공심(公心)을 근간으로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에 직면하면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결단을 내렸으며, 그 결과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삶은 세간과 출세간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총무원장을 역임하시며 미비한 종무행정 체계와 법령을 정비하신 공적은, 종단이 미래를 내다보고 현사회를 선도할 수는 기초를 다진 뜻 깊은 성취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불교정화운동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거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스님의 혜안(慧眼)과 추진력으로 종단은 단단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1980년 10.27 법난으로 뜻하지 않게 총무원장의 소임을 놓은 아픔을 겪었지만, 스님의 삶과 수행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후지실(雨後地實)의 진면목으로 오직 국가와 종단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관해온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후 첫 총무원장으로 선출 된 후 불교자주화, 깨달음의 사회화, 사회복지재단 설립 등의 원력을 발현(發顯)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심과 헌신으로 종단은 구습(舊習)을 타파하고, 시대와 사회를 향도하며 불법(佛法)을 교계 안팎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제 종단은 종도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설계하여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1998년 퇴임하시고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다시 세간의 이웃을 위해 대자비(大慈悲)의 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하여 10여년 넘게 빈민국가의 구호개발 사업에 헌신하는 모습은 후학은 물론 불교계에 커다란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세수가 산수(傘壽)를 넘었지만, 매년 10여 차례나 해외 구호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현지인을 격려하는 모습은 수행자의 전형(典型)을 보여주는 헌신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함께일하는재단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이념, 세대, 계층, 지역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대립하고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호(號)’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대해(大海)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선명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모습은 종단적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이번에 나온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과 화보집은 스님의 수행과 삶, 그리고 원력과 실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스님의 인생을 한 권의 책과 한 권의 사진집에 모두 수록할 수 있을까 하지만, 편린(片鱗)을 통해 전체(全體)를 짐작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기록이 스님과 불자는 물론 일반의 삶에도 두루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개인의 발자취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단과 근현대 한국불교의 생생한 실록(實錄)이며,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한순간도正道(正道)에서 벗어나지 않은 월주 큰스님의 행적(行蹟)은 후대의 지남(指南)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산수(傘壽)를 넘은 연세에도 늘 현장에서 중생과 함께 하는 스님께서 더욱 청안하시어, 현대인의 마음과 우리 사회에 언제나처럼 밝은 등불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2016년) 7월 0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